**REPO금리**  
RP금리라고도 함. 미국 시장의 단기 금리. 금융기관들이 서로 ‘급전’을 융통하는 것.

다른 데서 빌리는 것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하룻밤 사이 융통성을 제공 받는 루트.

국채나 안전자산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빌리는것

REPO 금리가 요동치는 경우는 즉 단기자금융통시장이 얼어붙는다는 증거. 연준은 기준금리격인 연방기금금리를 조정함. 이 금리가 레포금리 등 단기금리로 확산되고, 나아가 장기금리를 형성하는데 까지 확산된다. 연준은 이를 통해 경기상황을 조절한다. 그런데 단기자금시장이 갑자기 유동성이 얼어붙게 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의 의심받고, 연준의 경기조절 수단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레포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금을 더 쌓아두려고 하게 됨. 그러면 다시 경기가 얼어붙는 악순환이 벌어짐.

레포금리는 따라서 미국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의 위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44337> ‘2020년 세계 증시, 미국 레포시장에 달려있다.’